▲ 그린피스 특별일시후원하러 가기

2022년도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그린피스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 사무소가 힘을 합해 강력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쏟아지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있는 바다와 숲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확인하신 지난 1년 동안 그린피스의 활동들은
바로 후원자님 개개인의 후원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지구를 위한 더 많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 그린피스에 후원해 주시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COVER STORY

"우리의 어머니 지구를 잘 보살펴 주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가 적힌 그린피스의 열기구가 헝가리의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 행사는 교황의 부다페스트 방문을 기념해 우리 모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생태 및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변화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표지 사진 © Bence Jardany / Greenpeace

02-3144-1997
sukr@greenpeace.org
www.greenpeace.org/korea
facebook.com/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greenpeacekorea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

GREENPEACE

MIX Paper from responsible sources FSC C008469
PRINTED WITH SOY INK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그린피스 2021 연차보고서

2021 ANNUAL REPORT

GREENPEACE

CONTENTS

02 그린피스 50주년
04 인사말
06 캠페인 방식
10 2021 상세 프로젝트
27 후원자 이야기
30 후원금 사용내역 보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supporter.kr@greenpeace.org
+82 (2) 3144 1997

홍콩
10/F, Stelux House, 698 Prince Edward Road East, San Po Kong, Kowloon, Hong Kong
donor.services.hk@greenpeace.org
+852 2854 8300

베이징
Liangdian Creatie Park Room 201, Dongsishitiao 94,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greenpeace.cn@greenpeace.org
+86 (0)10 6554 6931

타이베이
No.109,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10045, Taiwan
타이중
No.66, Section 1, Meichuan West Road, West District, Taichung City 40357, Taiwan
가오슝
No. 22, Chengde St, Sanmin District, Kaohsiung City, Taiwan 807 80756
donor.services.tw@greenpeace.org
+886 (0)2 2361 2351

도쿄
8-13-11 NF Bldg. 2F, Nishi-Shinjuku, Shinjuku-ku, Tokyo
+81(3) 5338 9800

2021 연차 보고서 통권 8호
발행일 2022년 8월 16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디자인수다

반 세기의 희망과 실천 그리고 미래

50년 전, 1971년에 '그린피스'라는 이름의 배가 알래스카 남서부에서 미국의 핵무기 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이 항해는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고 결국 미국은 핵실험을 중단했습니다. 그 후 그린피스는 지구를 위한 전 세계적인 물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린피스의 역사는 항상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만들어졌습니다. 후원자님은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50년 동안 시민들과 그린피스가 함께 만든 변화의 흐름을 소개합니다.

© Rex Weyler / Greenpeace

1. 1975년 5월 31일 포경 반대 캠페인을 위해 항해 중인 그린피스III호
2. 1978년 6월 1일레인보우워리어 호에서 시추장비를 촬영 중인 토니 마리너
3. 1997년 4월 1일 기후변화의 증거를 찾기 위해 동 시베리아로 탐사를 떠난 그린피스 탐사팀
4. 2019년 10월 29일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한 그린피스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퍼포먼스
5. 2021년 11월 26일 자전거를 활용해 탄소배출 제로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한 자카르타의 시민들

1. 기후위기를 막으려는 글로벌 흐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 공동의 목표이자 도전입니다. 이미 135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이 목소리를 더해 주신 덕분에, 2021년 한·중·일 세 국가 모두 해외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흐름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2. 소비자들이 '용기내' 만든 변화

기업은 변화하기엔 너무 큰 조직으로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모으고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었기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죠. 코카콜라나 롯데, 대만의 훼미리마트 등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프리 움직임에 동참했고, UN도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는 조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3. 한 단계 발전한 환경 운동

지구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린피스의 역할입니다. 시민들은 점점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이나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 불매하기, 각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용기내' 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4. 변하지 않는 것 - 과학 조사와 연구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로서 일반적인 관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100% 독립성을 유지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이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시는 후원자님이 있어 이 모든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 환경을 지키는 것은 그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지키는 것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나라와 시민들을 우리는 점점 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저지대 섬사람들, 삼림파괴와 토지 수탈로 삶을 위협받는 아마존 원주민들을 비롯해 환경 파괴로 고통받는 취약층의 목소리를 알리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2 © Jean Paul Ferrero / Greenpeace

3 © Jim Hodson / Greenpeace

4 © Sungyong Lee / Greenpeace

5 © Jurnasyanto Sukarno / Greenpeace

그린피스가 필요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산토시 페이
그린피스
동아시아 이사회 의장

작년은 그린피스가 5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반세기 동안 우리는 석탄부터 원전, 플라스틱과 생물다양성, 북극에서 남극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캠페인을 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구와 평화를 위해 변화를 외쳤고, 대담하면서 창의적인 비폭력 직접행동을 통해 대중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민 개개인과 소통하여 지구를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왔습니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저는 그린피스 동아시아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지구를 더 푸르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루어낸 모든 변화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난 50년간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알래스카 암치카섬의 핵무기 실험을 막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개개인들의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작은 행동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 수천 명의 구성원들과 수백만 명의 지지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환경단체가 되었습니다.

다가올 50년 동안에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환경단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지 지켜보았기에, 저는 다음 반세기에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긍정적인 변화들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정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친환경 정책을 우선하여 기후위기를 막고, 우리의 바다와 숲, 더 나아가 소중한 지구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처럼, 저 역시 제 아이와 미래 세대가 오염 없는 세상에서 건강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가끔 저는 그린피스가 필요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곤 합니다. 모두가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상을 말이죠. 그린피스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이 오는 날까지, 저와 이사회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감독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환경을 위한 우리의 비전과 사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지구를 위한 행동이 필요한 지금,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더 큰 변화의 일원입니다

쯔이팽청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사무총장

동아시아는 현재 전 세계 다른 국가들처럼 기후위기로 인한 극심한 이상 기후들을 겪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막연히 생각해 왔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유엔 기후협약은 확연하게 높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중·일 3개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으며, 산업계 역시 변화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때로는 막중한 과제로 느껴지지만, 후원자님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이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와 환경 관련 문제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때로 환경 문제는 정치적 의제가 되기도 합니다. 권위 있는 2022년 세계 위험 보고서(Global Risks Report)에 따르면 기업, 정부, 시민 사회의 위험 전문가 및 리더들은 향후 10년 동안의 탑5 글로벌 위협에 기후위기 대응 실패, 극심한 이상 기후, 생물다양성 손실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우리의 노력은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편,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에도 어느 때보다도 큰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사랑하는, 바로 후원자님과 같은 시민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와 동아시아지부가 손을 잡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동아시아 지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24,660조 원으로 전 세계 총 GDP의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지역에 있는 일본 사무소와 동아시아지부는 자원을 공유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를 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통합을 통해 더 큰 도전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의 후원자로서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큰 움직임의 일부가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와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 주세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피스만의 캠페인 방식

그린피스는 글로벌 환경단체의 장점을 살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국경을 초월해 함께 일합니다.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연구와 조사를 진행하며, 언론에 환경 이슈를 알리고 시민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1. 다양한 분야와 협업

그린피스는 지역사회 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 유명인들과 협업해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홍콩 | 지역사회 협업

홍콩 사무소가 진행한 '재사용 식기 대여 프로젝트'에 춘완 지역의 소규모 레스토랑, 카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길거리 음식이나 음료를 사 먹는 시민들에게 식기를 대여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1,470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서울 | 유명 연예인들과 협업

서울 사무소는 그린피스 50주년을 기념해 조선희 사진작가, W 코리아와 협업하여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이정재, 한예리, 권유리, 이선균, 차학연, 윤승아, 류승룡, 박진희, 장윤주, 이광수 등 10명의 스타가 해수면 상승, 대기오염, 물 부족 등 기후위기 이슈를 형상화한 화보로 표현했습니다.

타이베이 | 전문가들과 협업

타이베이 사무소는 대만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2020년에는 'RE 10X10 기업 그린 파워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독려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52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동참했습니다.

바누아투 | 기후위기 피해자들과 협업

토착 원주민들과 섬 주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지난 11월 COP26 유엔 기후협약을 맞아 그린피스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누아투의 원주민 여성들과 함께 '기후 취약 국가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하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Greenpeace

© Waiho Ng / Greenpeace

◀ 바누아투 원주민 여성들과의 협업
▲ 홍콩 사무소의 '재사용 식기 대여 프로젝트'

© Tomas Munita / Greenpeace

▲ 남극 펭귄 서식지를 조사하는 연구원
▼ 아틱선라이즈호가 촬영한 인도양 해양생태계

© Tommy Trenchard / Greenpeace

2. 환경파괴 현실 고발 및 해결책 제시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환경파괴 현장을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며,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부와 기업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후쿠시마 | 방사성 오염물질 조사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 이후 매해 후쿠시마 현장을 찾아 방사성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은 2020년 11월 제33차 현장 방사능 검사를 마치고 재해 지역이 여전히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남극 | 펭귄 서식지 조사

그린피스의 해양감시선 아틱선라이즈호는 스토니브룩 대학의 과학자들과 함께 남극 펭귄 개체수 조사를 위한 항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과학자들은 남극 웨델해가 펭귄들의 마지막 피난처로, 이 지역을 강력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홍콩 | 쓰레기 산 고발

홍콩 사무소가 2달에 걸쳐 홍콩 내 70곳이 넘는 버려진 재개발지를 찾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채 8미터 높이의 쓰레기 산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루미늄 조각들, 회로 기판, 건설 폐기물 등 엄청난 양의 폐기물들이 뒤섞여 있었으며 토양에서 7가지 중 금속이 표준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인도양 | 해양 생태계 기록

그린피스 환경감시선 아틱선라이즈호는 지난 여름 인도양 모리셔스와 세이셸 사이에 위치한 사야 드 말하 뱅크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항해를 떠났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초대이자 공해에서 가장 큰 탄소 흡수원 중 하나입니다.

© Greenpeace

© Masaya Noda / Greenpeace

3.

온라인, 오프라인 시민 액티비스트 프로젝트 진행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 얼굴을 보고 한자리에 모이기는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린피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힘을 한데 모았습니다.

▲ 일본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프리 행진
▼ 러시아 사무소의 산불대응팀

© Sonya Kosacheva / Greenpeace

서울 | 플라스틱 집곡조사

지난해 8월, 서울 사무소는 코비드19 상황에 여러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점에서 착안해 각 가정에서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양을 조사하는 '플라스틱 집곡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총 841가구 2,671명이 참여했으며, 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제작되었습니다.

도쿄 | 플라스틱 프리 지도

도쿄 사무소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년 5월 플라스틱 프리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총 1,400곳이 넘는 식료품점, 백화점, 음식점 등 매장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이용자들이 손쉽게 제로 웨이스트를 검색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https://goodbyewaste.jp/

예카테린부르크 | 자원소방관 팀

러시아에서는 수년간 초대형 산불이 발생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기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무소의 산불대응팀은 지역사회의 긴급 대응 봉사자 팀과 함께 예카테린부르크 인근 이탄 습지의 화재를 조사했습니다. 그린피스 소방대는 산불 진압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에게 기본 기술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협상과 정책 및 솔루션 제안

그린피스의 독립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발휘합니다. 기업과 정부에 과감하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협상을 통해 정부나 기업이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 번의 정책 변경이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본 사무소에서 후쿠시마 주민 및 지역사회단체와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
▼ COP26에 참석한 제니퍼 모건 전 사무총장
▼▶ 타이베이 사무소의 '플라스틱 프리 동맹' 프로젝트

서울 | 20대 대통령 선거 기후위기 정책 제안

서울 사무소는 작년 11월,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과학 기반의 대책을 담은 기후에너지 정책제안서를 제작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주요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주요 후보들 모두 그린피스의 캠페인에 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 여론의 압력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맞서,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183,754명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후쿠시마 주민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Jeremy Sutton-Hibbert / Greenpeace

© Pei Jung Hsieh / Greenpeace

글래스고 | 국제회의 참관

그린피스는 공식 참관인으로 유엔기후협약에 지속해서 참가해 온 몇 안되는 국제 환경 보호단체 중 하나입니다. 작년 COP26에서 제니퍼 모건 전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그린워싱' 세미나에 참석해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업들의 그린워싱 실태에 대해 논했습니다.

타이중 | 정책 개정

타이베이 사무소는 지난 9월 편의점 체인 및 소규모 상점과 함께 재사용 컵 대여 프로그램인 '플라스틱 프리 동맹'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타이베이는 물론 대만 전역으로 확대되어 매장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 상세 프로젝트

2021, 변화는 계속됩니다

2021년은 모두에게 폭풍과도 같은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19는 수그러들 줄 몰랐고,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는
나날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후원자님들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큰 목소리로 변화를 외쳐주신 여러분 덕분에
그린피스의 캠페인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Marten van Dijl / Greenpeace

기후참정권 캠페인
글 정상훈 캠페이너

시민들과 함께 만든 기후공약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걷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더 확실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를 주요 모멘텀으로 삼고
캠페인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한국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

먼저, 시민들과 함께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 액티비스트 모임인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입법 실적을 점검하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연말에는 전국 초등학생들의 편지를 모아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무려 594개 초등학교에서 14,617명의 초등학생들이 기후위기를 막아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둘째, 언론과 각종 미디어와의 협업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공론화하는데 힘썼습니다. KBS, 헤럴드경제 등 주요 언론과 함께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분석한 내용을 언론사를 통해 대중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린피스가 던진 질문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 솔루션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향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탄소세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에는 기후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지속해서 기후정책의 필요성을 대선 후보들에게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지난해 말 주요 4개 정당 후보 캠프를 방문해 그린피스의 기후에너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는데요, 이 제안서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소 및 내연기관차 퇴출 등의 제안을 담았습니다. 그린피스의 제안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약속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그린피스는 주요 후보들에게 기후공약 평가서를 전달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과제

이번 그린피스의 기후참정권 캠페인을 통해 소통한 주요 후보들 모두,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10대 공약에 기후 정책이 포함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 부족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너무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빠져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자 하는 의지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린피스는 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기울이도록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캠페인), 탄소국경세(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등 새로운 기후 규범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막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의 기후참정권 캠페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Yeo-sun Park / Greenpeace

우리에겐 원전 말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의 해였습니다.
그린피스는 2020년 코비드19 감염증의 창궐 이후에도
후쿠시마 현지 방사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내 원전 캠패인을 재개하고 부실 원전 관리 문제를 알렸습니다.

© Greenpeace

© Greenpeace

© Greenpeace

후쿠시마 10주년 활동

동아시아지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GE 원자력 사업부의 수석 엔지니어를 역임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무소 책임 관리자를 맡았던 컨설턴트 엔지니어 사토시 사토(Satoshi Sato) 컨설턴트 엔지니어는 일본 내 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점검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술자입니다. 사토시 사토와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현재 일본 정부가 채택한 폐로 방법으로는 2050년 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고독성의 오염수를 다량 발생시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 혹은 세기를 넘어서는 시간까지 원전 폐로 작업으로 인해 더 많은 양의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해 우리 바다로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활용해 국제해사기구(IMO), 유엔인권이사회, 태평양 도서국 포럼 등 국제연합 및 국제기구와 소통하고, 정부와 과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10월, 국제해사기구 총회에서 일본 정부와 IAEA에게 오염수 방류가 유일한 대안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열리는 총회에서 이 답변을 받아, 전 세계 회원국과 관련 과학자들이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선 국제 해양법에 따라 일본의 방류를 지연시키고 방지할 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있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전 가짜 뉴스는 그만!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작 안전에 관한 규제나 대책에 대한 논의는 멀어지고 입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캠페인에 더해 국내 탈원전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2021년 7월, 탈원전 정책으로 대정전 위기가 온다는 대량의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책임 기관들과 전력거래소 전문가를 초청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 운영 축소는 전혀 없었으며, 위조 부품이나 격납고 부실 등 치명적인 안전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원전이 많았던 점을 많은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린피스가 주최한 토론회 이후 지난 달까지 수백개에 달하던 가짜 뉴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효과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2021년 7월부터 천년의 도시인 경주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건을 내부 고발자가 폭로하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내 최초로 수명 연장을 진행했던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 평가가 엉터리였던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 시설은 부실한 안전 관리 속에 부식된 데다 잘못된 시공을 수십 년간 방치해,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로 누출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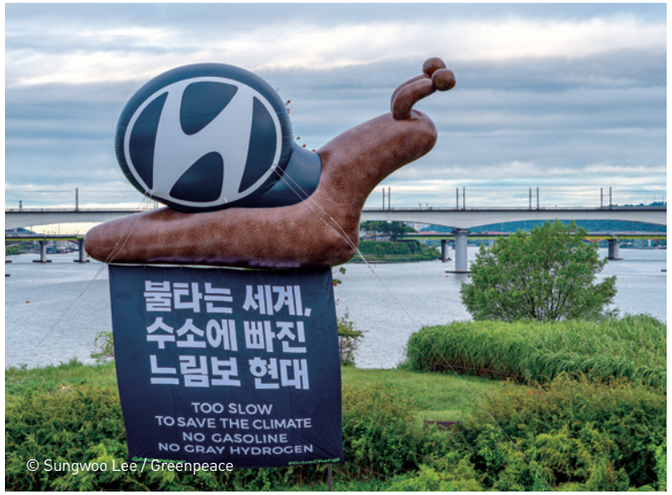
그린피스는 마구잡이식으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법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방사성 물질 누출 조사 과정을 방해하고 증거까지 훼손한 한국수력원자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모두 '원전 말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안전을 요행에 맡길 수만은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저희의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 사무소의 국내 원전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글 최은서 캠페이너

탈내연기관을 향해 시작된 움직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1위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린피스는 베이징, 도쿄 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Sungwoo Lee / Greenpeace

달팽이 현대차, 더 빨리 달려야 해!

서울 사무소는 2019년부터 현대차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독일 뮌헨국제모터쇼 현장에서 현대차는 2035년 유럽, 2040년 미국, 중국, 한국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및 2045년 탄소중립 선언을 선언했습니다. 2040년 이후면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 시장에서 더 이상 경유,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를 팔지 않게 됩니다. 이는 분명 대단한 성과이지만,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 7월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하자 그 일정에 딱 맞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규제가 있는 미국, 중국,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요. 대형 신흥시장인 러시아나 인도,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등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다 발 빠르고 책임감 있는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 사무소는 지난 9월 8일 여의도 한강 변에 가로 10m, 세로 6.5m의 거대한 달팽이 풍선에 현대차 로고와 "불타는 세계, 수소에 빠진 느림보 현대"라는 현수막을 달아 띄우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베이징, 도쿄 사무소와의 협업

2021년 그린피스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은 베이징, 도쿄 사무소와 함께 협업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현대차뿐 아니라 더 큰 자동차 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더 큰 팀이 뭉치게 된 것이죠. 일본의 토요타는 어떻게 하이브리드를 고집하고 있는지, 또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지 들으며 다양한 국적의 캠페이너들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힘을 합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사무소 중 서울 사무소가 가장 먼저 교통 캠페인을 시작한 만큼, 다른 지역 캠페인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에는 세 사무소가 처음으로 첫 공동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현대·기아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10대 회사의 환경 계획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친환경 교통수단이 발달한 미래 상황을 그린 비디오를 함께 제작해 전 세계에 공유했습니다.

2021년, 현대차그룹은 부분적이나마 탈내연기관을 선언하고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현대차는 물론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의 친환경 자동차 캠페인 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내연기관차와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석탄 투자 캠페인
글 현유경 콘텐츠 작가

해외 석탄 투자, 이제 안녕!

동아시아 지역은 그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투자하며 전 세계의 석탄 사업을 지탱하는데 부끄럽게도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2017년,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해외 석탄 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전략적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한·중·일 3개국 모두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동아시아지부가 함께 만든 변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해외 석탄 사업에 약 1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금은 공적 금융기관이 투자했고, 한국전력이 건설부터 관리, 유지보수까지 참여했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건설회사인 현대 건설이 인도네시아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수랄라야 지역에 석탄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사실을 국내에 알리고, 현지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실태를 알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자칫 딱딱하고 복잡할 수 있는 석탄 문제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신문에 해외 석탄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검은 솜사탕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동시에, 최고 의사결정자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외 석탄 투자를 멈추라는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력과 여러 건설 회사들이 더 이상 해외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작년 4월 문 전 대통령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에 더 이상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Kasan Kurdi / Greenpeace

작년 5월에는 한국에 이어 일본 정부 역시 해외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도쿄 사무소는 MUFG, SMBC 및 Mizuho 등 석탄 투자에 크게 관여하고 있는 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왔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투자가 금지되었는데도 정책상의 허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는 현실을 밝혀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NGO들과 힘을 합해 주요 금융기관에 최초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주총회결의안을 제출해 34.5%의 표를 얻은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도쿄 사무소는 석탄발전 대출 규모로 세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3대 민간금융권에 석탄 투자 및 융자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우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역시 중국 정부의 해외 석탄 투자를 막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의 해외 석탄 사업 투자국으로, 그만큼 이 캠페인은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는 해외 석탄 사업 투자의 위험성을 강조해 의사 결정자들의 관점을 바꾸는 방식의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의사 결정자들에게 석탄 화력발전 투자는 환경오염, 과잉생산, 기후위기 등의 문제로 국유 자산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요 자금원을 조사하고, 중국의 모든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추적하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례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4년간의 꾸준한 캠페인으로 우리의 조사와 예측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더 많은 투자자와 의사결정권자들이 우리의 분석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9월, 중국 정부 역시 해외 석탄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이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더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하겠습니다.

© Jung Taekyong / Greenpeace

팬데믹도 멈출 수 없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물결

2년 전 코비드19 발생 후 전 세계에서 추가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840만 톤에 이릅니다. 코비드19는 아직 우리 곁에 있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세계는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포크와 나이프, 수저 등 플라스틱 식사 도구와 접시, 빨대, 스티로폼 컵과 음식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2월 코카콜라는 포장재의 최소 25%를 재사용 가능한 소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으며, 3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처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Daiyoon Lim / Greenpeace

국내 기업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다

서울 사무소의 플라스틱 캠페인 팀 역시 식품 회사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먼저 식품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 감축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6월에는 한 달간 비대면 플로깅 마라톤 행사 '어스앤런 플로깅(Earth & Run Plogging)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데요, 이번 챌린지에 1만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누적 1,872시간 동안 총 11,215km를 함께 달리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이는 지구 한 바퀴 반 길이만큼의 거리를 청소한 것입니다.

7월에는 그린피스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해 국내 식품 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롯데칠성음료가 3년 치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뒤를 이어 롯데제과 역시 플라스틱 25%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린피스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발표하자 세부 계획을 추가로 발표하고 용기와 트레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그린피스는 11월 말 플라스틱을 배 속에 가득 담고 있는 초대형 물고기들을 롯데칠성음료, CJ제일제당, 농심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이 세 기업들은 플라스틱 집콕 조사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가장 많이 한 식품 제조사들이었습니다. 상위 3개 기업이 책임지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 전달한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사무소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애니메이션이 178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에서도 공유하고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든 플라스틱 보고서

그린피스는 8월 말 롯데칠성음료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동원F&B 등 국내 5대 식품 회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및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 가정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2021 플라스틱 집콕조사: 일회용의 민낯>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조사에는 구내에서 실시한 시민 참여형 플라스틱 배출 실태조사 중 최대 규모인 841가구(2,671명)가 참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품의 포장재가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총 77,288개)의 78.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폐기물을 제조사별로 분석한 결과, 배출량 상위 10개 식품 제조사가 전체 배출량의 23.9%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플라스틱 캠페인 계획

서울 사무소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형마트와 식품 회사들에게 2025년까지 대표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포장재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2년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용기내 캠페인을 더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비드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캠페인에 높은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자님께 감사드리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내일을 만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플라스틱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아주는 우리의 바다, 30×30 선언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구가 푸른 행성으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푸른 빛깔 때문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천연 탄소 흡수원으로, 대기의 열과 탄소를 흡수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무분별한 개발과 오염으로 파괴되어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바다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해양생태계를 지킬 수 있도록 전 세계 바다 보호를 위한 '30×30'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30×30 지지 선언

'30×30' 캠페인은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의미로, 이는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와 기후위기 회복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글로벌 보전 목표와 그 흐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바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 면적의 61%나 차지하지만, 이중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단 2%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다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계속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20여개 그린피스 사무소와 함께 활발한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독일을 비롯해 전 세계 100여 개국이 공식적으로 30×30 공식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 5월, 한국 정부 역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30×30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어 작년 10월 한국 정부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

© Sungwoo Lee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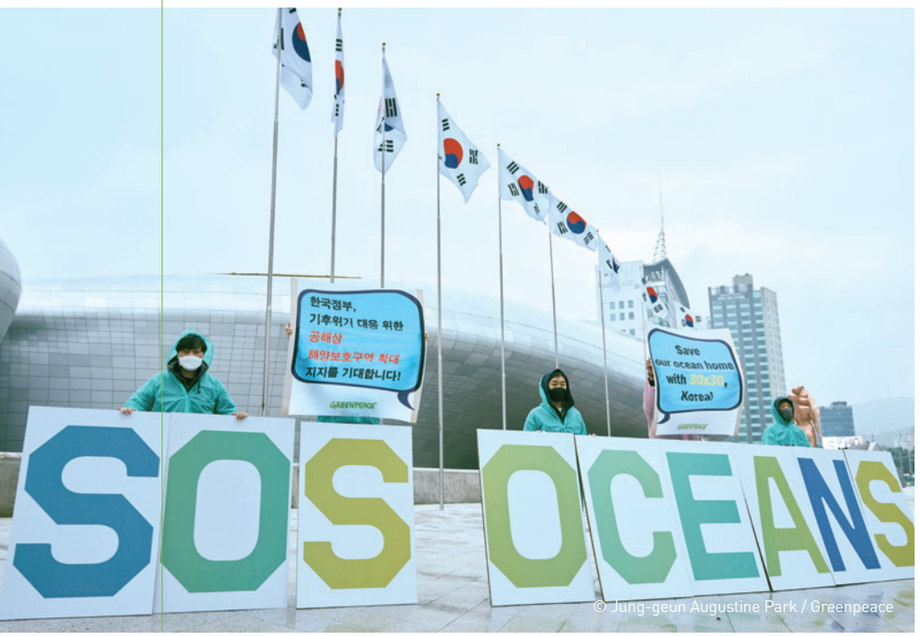
회(CCAMLR) 해양보호구역 지지국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그린피스의 해양보호 캠페인에 수년간 강력하게 지지를 보내 주신 후원자님들의 목소리가 이루어낸 커다란 성과입니다!

서울 사무소의 해양보호 캠페인 활동

지난 1년간 그린피스는 공해상 해양 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각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작년 5월에는 P4G 정상회의가 개최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그린피스 액티비스트들이 한국 정부 대표단에 유엔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회의에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하며 비폭력 직접행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P4G 회의 폐회식에서 한국 정부가 30×30 해양 보전 목표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6월에는 바다가 처한 위기와 해양보호구역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보고서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을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바다가 하는 중요한 역할과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국내 미디어와 대중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사무소는 대중과 재미있는 소통을 통해 해양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작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바다 동물 MBTI 테스트'를 론칭했는데요, 요새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MBIT 테스트 형식을 활용해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어업 및 해양오염으로 고통받는 바다 동물들의 이야기를 심리테스트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총 100만 명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이 바다동물 MBTI 테스트에 참여해 주셨으며, 2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전 세계 해양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에 힘을 더해주셨습니다.

향후 해양 보호 캠페인 계획

위기의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엔 BBNJ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협약 회의입니다. 총 4번의 회의 중 마지막 4차 회의가 2020년 봄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비드19의 확산으로 계속해서 연기되다 마침내 2022년 3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회의에서조차 바다 보호를 위한 해양조약 체결이 합의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전 세계 바다는 법적 규제가 부재한 틈을 타 지금도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각국 정부가 2022년 중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모두의 공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글로벌 해양조약 체결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캠페인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린피스는 '시민의 힘'을 믿습니다. 2022년에 바다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후원자님의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Jung-geun Augustine Park / Greenpeace

© Marizilda Cruppe / Greenpeace

© Sungwoo Lee / Greenpeace

생물다양성 캠페인
글 천유경 콘텐츠 작가

한국의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켜주세요

기후위기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느껴졌던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역시 바싹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2021년 기후위기로 무너지는 국내 생태계의 변화와 실태를 조명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생물다양성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생물다양성 캠페인 팀은 기후위기가 먼 미래나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국내 토종 생태계와 농업, 어업의 피해 상황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보고서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Jongmo Seo / Greenpeace

© Jongmo Seo / Greenpeace

© Hyunjun Kim / Greenpeace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처한 위험을 알리다

먼저, 우리의 토종 생태계에서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위기에까지 처한 동식물들을 소개하며 우리와 가까워진 기후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6월 4일에 환경의 날을 맞아 서해 해변에 대형 샌드 드로잉 아트를 통해 파괴되는 우리 생태계를 표현했는데요, 기후위기에 민감한 국내 멸종위기종인 구상나무, 까막딱따구리, 하늘다람쥐, 사향노루, 붉은점 모시나비와 사람의 모습을 함께 표현해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표현했습니다.
11월에는 문화비축기지 외벽에 '높이 13.85m, 폭 40m'의 초대형 프로젝션 맵핑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의 초상'이라는 주제로, 오랑우탄과 독수리, 호랑이, 코끼리 등 이상기후로 생존을 위협받는 동물들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거대한 사람의 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생명다양성재단과 공동 제작한 보고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연구조사보고서: 사라지는 것들의 초상〉발간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한반도의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남쪽 지방에서 재배하던 과일들의 재배지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세기말이면 고추의 89%, 쌀과 감자도 25%, 10~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처럼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로 피해를 입고있는 농가들을 찾아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언론과 대중에 전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식해적단, 헤이뉴스 등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기후위기와 식량 문제에 관련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총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또한 'W매거진'과 함께 두 번째 보고서 〈기후위기 식량 보고서: 사라지는 것들의 초상 - 식량 편〉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북으로도 제작되었으며, 더욱 넓은 층의 대중에게 기후위기 문제를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구원투수, 삼림생태계 보호

2022년에 들어와서 생물다양성 캠페인 팀은 기후위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초대형 산불로부터 국내 숲 생태계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15차 세계산림총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불타는 지구 사라지는 숲'이라고 적힌 대형 산불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금 당장 산림 파괴 정책들을 개선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숲은 다양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산업적 농업과 육류 산업을 위한 대규모 산림벌채, 목재를 태워 에너지화하여 탄소배출을 오히려 심화하고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산림바이오매스 등은 지금 이 순간도 숲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숲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코비드19도 막지 못한 환경 사랑

2021년은 2년째 지속된 코비드19로 사회 곳곳에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들의 환경에 대한 열정은 오히려 더욱 늘어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후원자님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민참여 캠페인 활동을 소개합니다.

자원봉사 신청자

7,580

(2020년 1,912명)

시민참여 캠페인에 한 번 이상 참여한 시민 수

50,263

(중복 포함)

그린뉴딜 시민행동 참가자 경쟁률

19:1

(45명 선정에 835명 신청)

2021년 서울사무소 자원봉사자 총 인원

48,022

© Yejin Kim / Greenpeace

© Yejin Kim / Greenpeace

© Yeo-sun Park / Greenpeace

그린피스 시민참여팀은 코비드19 상황에 맞게 봉사자분들이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그린피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을 보내 주신 자원봉사자 수는 7,580명으로 2020년 1,912명에 대비해 약 4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50,263명(중복 포함)의 자원봉사자와 시민 분들이 총 48,022의 시간을 들여 그린피스가 주최한 봉사활동, 대회, 전시회, 온라인 세미나 등에 참여해주셨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시민감시 활동 늘려

그린피스 시민참여팀은 4월부터 8월까지 국회의원들의 기후변화 관련 입법 활동을 비대면으로 조사하는 자원봉사활동인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를 선보였습니다. 45명 참가 인원에 835명의 시민 분들이 지원해 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8월 개인당 최장 30시간의 봉사활동에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에,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기후위기 입법 활동에 어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담은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 입법 활동 현황〉 보고서를 제작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시민 분들에게 상세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8월에는 841가구가 참여한 비대면 봉사활동 '플라스틱 집콕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버려지는 77,288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5~6월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기후위기의 시급성을 알리며 그린피스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첫 미디어아트 '나, 우리 그리고 지구'를 진행해 약 25,000여 명의 시민 여러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함께 만드는 시민참여활동

1월에는 어린이 바다보호 그림 그리기 챌린지를 개최했는데요, 2,104명의 어린이들이 출품하며 높은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12월에는 전국의 초등학생 14,617명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한 달리기 '어스앤런' 역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시민참여 활동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에는 플라스틱을 주우며 달리는 '어스앤런 플로깅'을 진행해 14,001명(중복 포함)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달린 거리는 총 60,801㎞이며, 이는 지구 한 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플로깅 참여자 1명당 500㎖ 생수병 1병을 주웠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약 210㎏에 해당하며, 이 생수병을 일렬로 세웠을 때 그 높이는 2,940㎞에 달해 한라산 높이 1,947㎞를 넘는 수치입니다.

그린피스의 시민참여 활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 뜻깊은 캠페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디어와 온라인 캠페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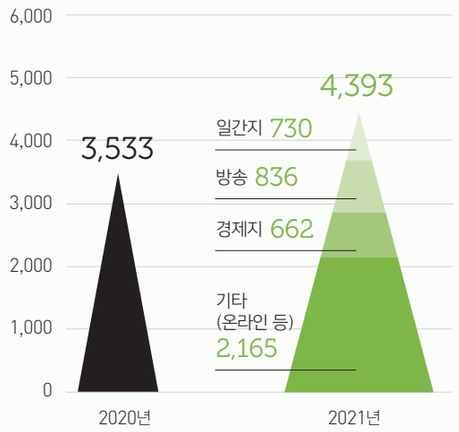
그린피스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해 활동합니다.
신문, TV 등 전통적인 매체는 물론 각종 온라인 매체와
그린피스 자체 채널을 통해 캠페인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캠페인과 환경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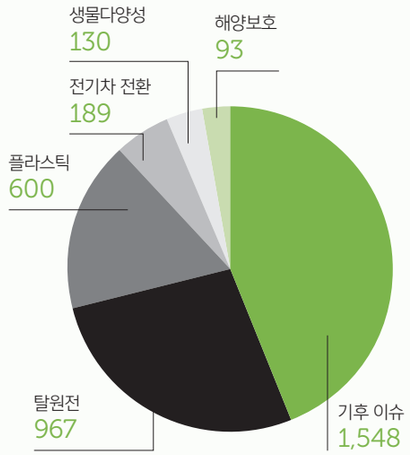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소개된 그린피스 관련 보도는 총 4,393건으로, 작년보다 24% 더 늘어났습니다. 기후위기와 그린피스가 함께 소개된 기후위기 관련 보도는 807건으로 작년보다 100건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인 캠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보도로, 약 200건의 보도에서 그린피스의 인터뷰나 입장문을 소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SBS), 시사직격(KBS), PD 수첩(MBC), SBS 뉴스토리 등 주요 언론의 다큐멘터리 방송이 그린피스와 협업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는 COP26 관련 소식으로, 208건의 기사가 그린피스의 인터뷰나 입장문을 소개했습니다.
2021년에는 뉴스나 기사에 소개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인터뷰와 기획기사,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사와 협업하여 캠페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피스 캠페이너와 전문가들이 코리아타임즈, KBS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SBS '인-잇'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고정 기고 및 고정 출연해 환경 관련 전문가로 활약했습니다.

미디어에 소개된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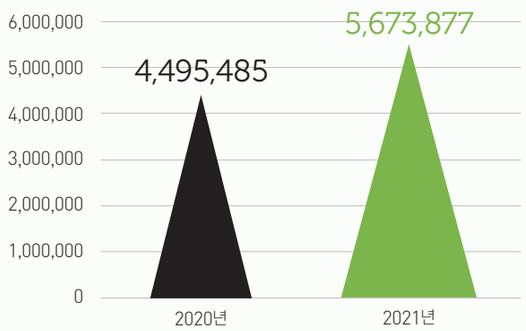
캠페인 별 언론 노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

그린피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은 2021년 비대면으로 더 쉽고 빠르게 캠페인 소식을 알리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생물다양성 캠페인은 유튜브 채널 '지식해적단'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위기와 그에 따른 식량 위기를 시리즈로 펴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MBC, JTBC의 유튜브, 뉴미디어 채널과 협업을 통해 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팀이 발행한 블로그와 영상의 조회수는 5,673,877회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비해 26%나 증가했습니다.

블로그와 영상 조회수



또한 그린피스가 직접 운영하는 팟캐스트 G식채널의 구독자 수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특히 팟캐스트 경제 부문 1위 채널인 '삼프로TV 경제신과 함께'에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이 출연해 탄소 국경세 내용을 소개하여 2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워리어 호를 가상으로 만들어 소개했습니다. 12만 7천여 명이 이 가상 환경감시선을 방문해 게임과 함께 환경문제를 알기 쉽게 이해하고 주변에 공유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인게이지먼트 활동

인게이먼트팀은 더 많은 시민들이 그린피스 캠페인에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인을 알리는 홈페이지들을 개발하고, 각종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통해 흥미롭고 친근하게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알립니다.

배우 류준열 후원자의 5주년 기념일과 '지구의 날'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만큼 '환경 운동가'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은 류준열 후원자님. 그린피스 캠페인 '용기내'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는데요. 후원 5주년과 지구의 날을 맞아 환경에 대한 생각과 감회를 인터뷰를 통해 나눴습니다. 또, 용기내 캠페인을 더 널리 홍보하고 장려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필터도 소개했습니다. 류준열 후원자님은 그린피스와 함께한 지난 5년을 돌아보며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 즐겁지 않은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약간의 주저함과 망설임, 고민을 가지는 게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즐겨주세요.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응원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는 화보 촬영에 동참한 10명의 스타들

2021년 9월, 그린피스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 화보를 제작했습니다. 월간 매거진 더블유 코리아, 조선희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파블로 다니엘이 참여한 이번 화보에는 이정재, 한예리, 권유리, 이선균, 차학연, 윤승아, 류승룡, 박진희, 장윤주, 이광수 등 총 10명의 스타들이 참여해 각각 대기오염, 물 부족, 해수면 상승, 해양 플라스틱, 지구온난화라는 5가지 환경 문제와 희망과 연대, 재생가능에너지, 탄소제로 등 5가지 해결방안을 콘셉트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표현했습니다.

바다 동물 테스트

"나와 가장 닮은 동물은 누구일까요?" SNS에서 유행하는 심리테스트에서 착안해,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심리테스트도 하고 해양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바다 동물 테스트'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테스트에는 백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공유 22만 건, 해양보호 서명 2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날치,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함께 만든 뮤직비디오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와 현대무용 그룹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심형준 감독이 함께 뭉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뮤직비디오 <후쿠시마 오염수 (feat. 그린피스)> 를 제작했습니다. 이날치와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우리 노래 '범 내려온다'를 사랑해주신 만큼 이번 뮤직비디오와 앞으로 진행될 그린피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캠페인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를 맞아 뮤직비디오가 많은 시민에게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진실과 그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줄리안, 기은세와 함께한 '채세권'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된 채식(비건). 환경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채식을 시작한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요리 금손'으로 주목받는 배우 기은세를 비롯해 여러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채식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는 '채세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Yejin Kim / Greenpeace

후원자 이야기 1

양봉을 통해 배운 놀라운 자연, 후원으로 함께 지켜요

인천 하늘고등학교 양봉동아리

"인천에 하늘고등학교 양봉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채밀한 꿀을 팔아서 그린피스를 후원해 주신대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저는 "무슨 동아리요?"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아리'와 '양봉'이라는 단어를 같이 듣는 일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양봉 동아리는 어떻게 활동을 할까? 그린피스에 후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지난 7월 8일,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학생들,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배운 것들, 환경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Q 인기 폭발 양봉동아리의 비결은?

하늘고등학교 양봉동아리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학교에 꽃도 많고 양봉이 잘 될 것 같다는 양봉 전문가 지인의 말에 교장 선생님이 반농담으로 "양봉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꿈열정지원부 선생님들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덥석 양봉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처음 동아리를 시작한 이형주 선생님은 "선생님들도 모두 초보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려면 양봉을 먼저 배워야 했기에 어려움도 많았다"면서 "이제야 양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20% 정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말과는 달리 어느덧 선생님들도 양봉의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수만 마리의 벌들이 모여서 웅웅대는 소리만 들어도 덜컥 겁이났지만,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주변 연수원에서 항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정수리를 벌에 쏘이기도 하고, 수만 마리가 새 벌집으로 이동하는 '분봉'에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주고 관심을 보내는 사랑받는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채밀한 꿀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사

고 싶어 하는 인기 상품이 되었고, 10명을 뽑는 동아리 회원 모집에 60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교실에서 벌 뿐만 아니라 새나 벌레가 들어왔다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 새들어왔어요~!'하면서 저희를 찾아와요. 벌을 잡는 고스트버스터즈가 된 기분이에요." 꿈열정지원부의 천도현 선생님은 처음에는 "학교에 벌을 키운다고요?"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학교 전체가 벌과 친숙해졌다고 합니다. 양봉을 시작하고 나서 교내에 심어진 나무에서 나는 열매도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요. 양봉 동아리 아이들이 아니어도, 더욱 풍성해진 꽃과 열매들을 보고 벌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늘고등학교 양봉 동아리에는 또 한 분, 그린피스와 흥미로운 인연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바로 이예은 선생님입니다. 2014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캠페인을 위한 자료수집을 도왔던 경험이 있었던 이예은 선생님은 그린피스의 활동 방식을 잘 알기에 후원할 단체를 선택할 때 더 믿음이 갔다고 합니다.

"부장님께서 꿀을 판매한 수익금을 독립환경단체에 기부하자고 하셔서, 어느 단체에 하면 좋을지 찾아보았는데요.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 그린피스의 정신을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업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최근 꿀벌들의 집단 폐사 등 생물다양성이 이슈인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벌과 곤충들은 물론 생물다양성 전체를 위해 다양한 수목을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가 캠페인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부탁도 전해주셨습니다.

미니 인터뷰

김민서 학생

"처음엔 생명 자체에 관심이 생겨서 양봉 동아리에 들어왔다가, 양봉에 대해 배울수록 기후변화의 심각성도 알게 되었고 생명다양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연구를 하면서 자료조사를 많이 했는데 기후위기 등 인간들 때문에 생기는 파괴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지금은 졸업 후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게 버킷리스트 1위인데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기후나 생태 관련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그린피스도 과학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사람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세현 학생

"도시 양봉이 늘어나고 있는데, 건물 옥상 등에서 양봉을 하다보니 사람과 벌에게 서로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아 벌과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만들고 싶어 벌을 위한 생태통로를 연구하게 됐어요. 남들이 보면 무서울 수도 있고 불편해 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들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양봉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싶어요. 그린피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오래된 메일 등이 쌓여서 생기는 데이터 쓰레기와 전기 낭비 문제 등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놓치는 문제들, 작은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후원자 이야기 2

후원자에서 환경감시선 항해사로!

그린피스 항해사, 후원자 윤승훈 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아틱 선라이즈호에 이등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윤승훈입니다. 해양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실습에서 만난 류한범 항해사 선배님과의 인연이 저를 그린피스로 이끌게 되었네요. 그때 "항해만 하지 말고 하늘에 별도 보고 별똥별도 보며 진정한 항해를 즐길 수 있는 항해사가 되어라."라고 하면서 "나는 꼭 그린피스 항해사가 될 거야"라고 하셨어요.

화물선을 탈 때는 여유를 느끼긴 힘들었지만, 선배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지구의 환경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환경감시선의 이등항해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항해 루트를 짜는 일을 합니다. 작년 항해에서는 향유고래 탐사를 했었는데요, 수중음향탐지기를 활용해 지중해 크레타섬 주변에 37마리의 향유고래가 건강히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가장 가 보고 싶은 곳은 역시 북극과 남극이에요. (사실 제가 그린피스의 후원자가 된 계기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류준열 님의 북극 보호 영상이 너무 감명 깊었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그쪽 해역을 항해해 본 적은 없어 두려움 반, 설렘 반이지만 꼭 한 번 가서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Q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경감시선 생활

아틱 선라이즈호는 상선의 1/200 크기입니다. 그린피스는 배는 작아도 무궁무진한 선한 영향력과 환경 사랑을 싣고 다닌다는 점이 가장 보람차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20여개국에서 온 선원들이 함께 생활하는데요, 제 부족한 영어 실력에도 선원 친구들이 다들 편하게 대해주고 알아 듣기 쉽게 여러번 설명해 줘서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처음 배를 타러 간 날 인수인계 걱정에 바싹 긴장하고 있었는데 선장님이 '승후니? 해변에 수영하러 가자~'라고 하셔서 수영도 하고 해변의 쓰레기를 주웠던 것이 기억에 남아요. 또 습관대로 선장님에게 'Sir(남자에게 붙이는 존칭)'라고 대답했더니 이름으로 부르라고 혼이 났어요. 아, 이런 걸로 혼나기도 하는구나 신기했어요. 정말 수평적인 문화라 서로 존중해줘요.

Q 새로운 환경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나요?

크로아티아에서 화석연료에 반대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하고 경찰서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저와 같은 선원들이야 바로 풀려났지만, 선장님은 책임자로 하루 동안 구금되셨었죠. 아시아인 선원들은 배의 음식이 맞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배가 정박할 때마다 배의 요리사가 나가서 먹고 싶어 하는 걸 사 오세요. 그럼 대만에서 온 누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형 등등과 함께 '이번엔 어떤 라면을 먹을까?' 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죠.

Q 미래를 위한 그린피스의 역할

바다에 떠다니는 어망, 어구류와 온갖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당장 우리 세대도 환경파괴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미래에 다음 세대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먼저 우리를 위해, 멀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슈퍼맨은 아니지만, 우리의 실천이 하나하나 모이면 꼭 변화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어요!

크리스티나 산 비센테
동아시아 지부 부사무총장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를 함께 해결해 주세요

후원자님께 드리는 이 글을 적다가, 문득 작년 연차보고서에 제가 적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2022년이면 팬데믹이 모두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휴가를 즐기고, 가족과 친구들과 마음껏 만나며 아이들도 모두 자유롭게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복잡하고 전 지구적인 문제는 손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직도 지구 곳곳은 계속되는 코비드19로 일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후원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린피스와 함께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자님이 보여주신, 지구를 위한 변함 없는 애정과 헌신은 저희 모두에게 크나큰 용기와 영감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의 후원은 그린피스가 하는 모든 활동의 기반입니다. 개인 후원자님들의 후원이 있기에 우리는 전 지구가 직면한 또 다른 복잡한 문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행동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린피스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기업에 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비영리단체들에 후원해 주십니다.

2021년, 우리는 후원자님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더욱 강력한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펼쳤고, 플라스틱 쓰레기 감소와 해양보호구역 확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2021년 연차보고서에 소개된 그린피스가 진행한 캠페인들과 함께 만들어 주신 변화들에 대해 즐겁게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해주시는 후원자님들이 있어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38.2%(11,460원)

생물다양성(해양, 삼림 보호)
6.8%(2,040원)

독성물질 제거
6.4%%(1,920원)

글로벌 및 교차 캠페인
24.0%(7,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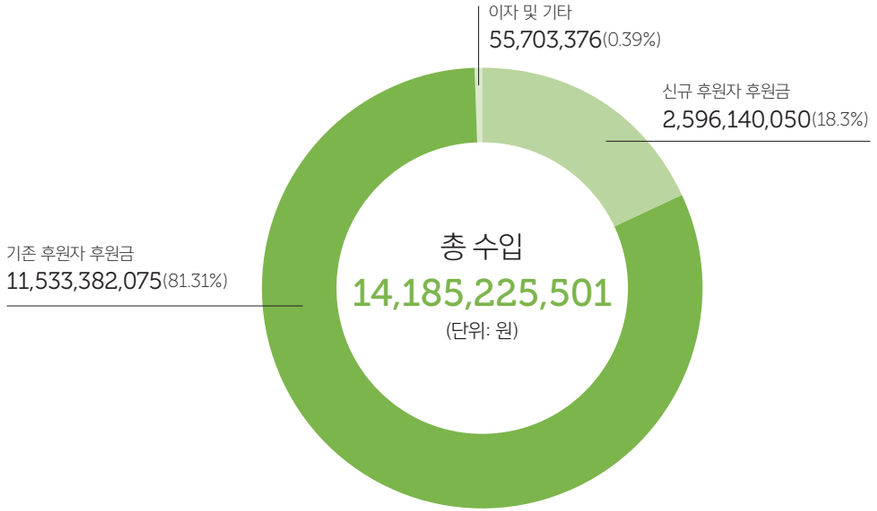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노출
16.6%(4,9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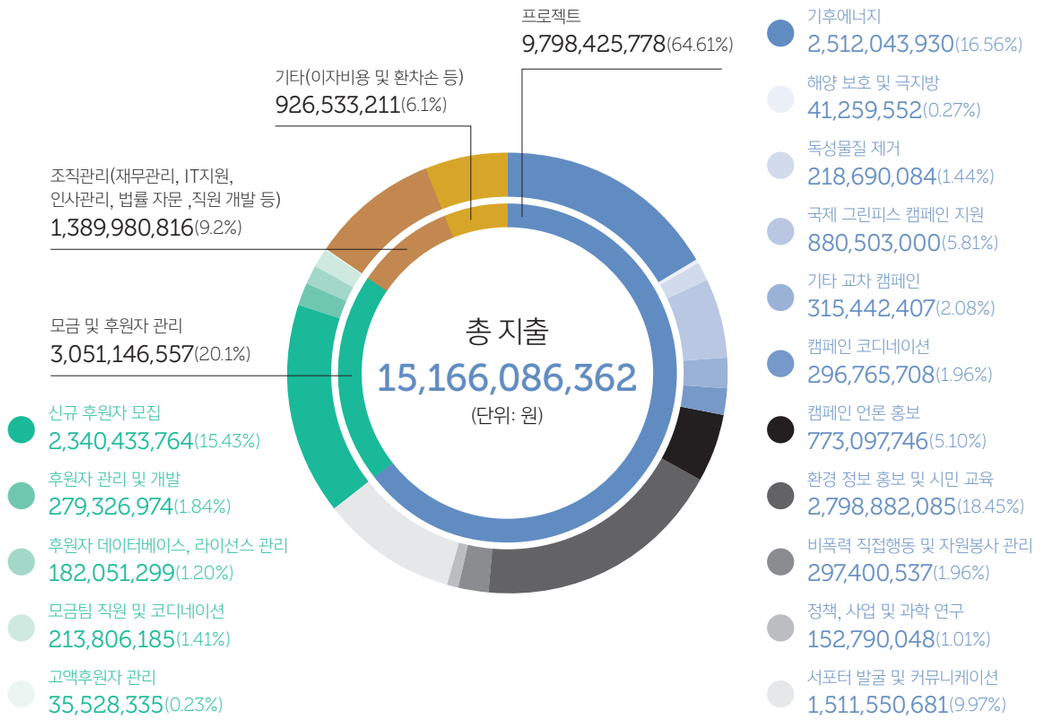
비폭력 직접행동 및 액티비스트
2.3%(690원)

친환경 정책 및 비즈니스
1.5%(4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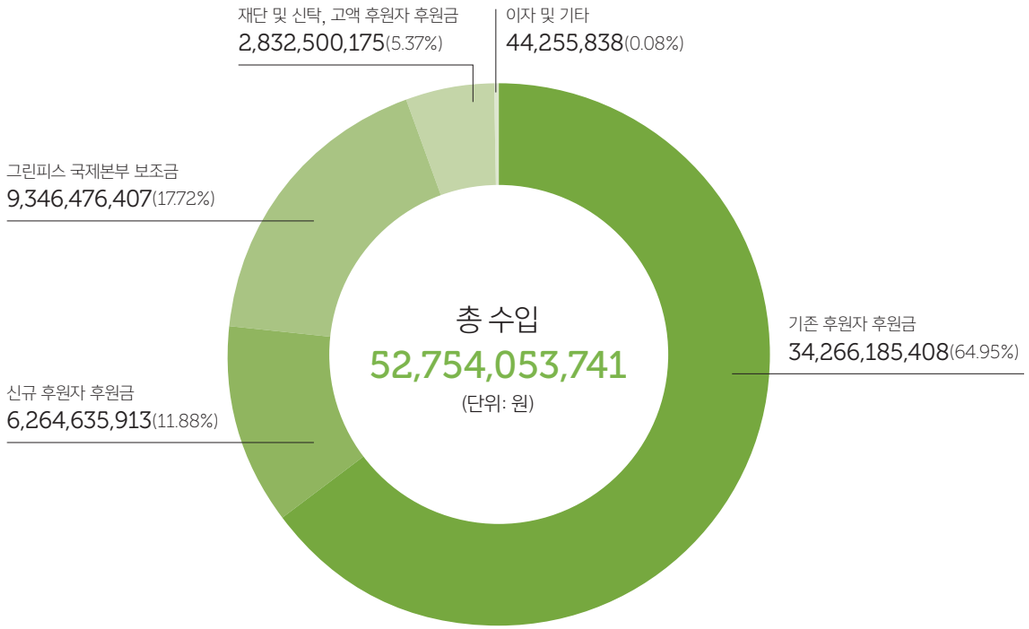
과학 조사 및 연구
4.2%(1,26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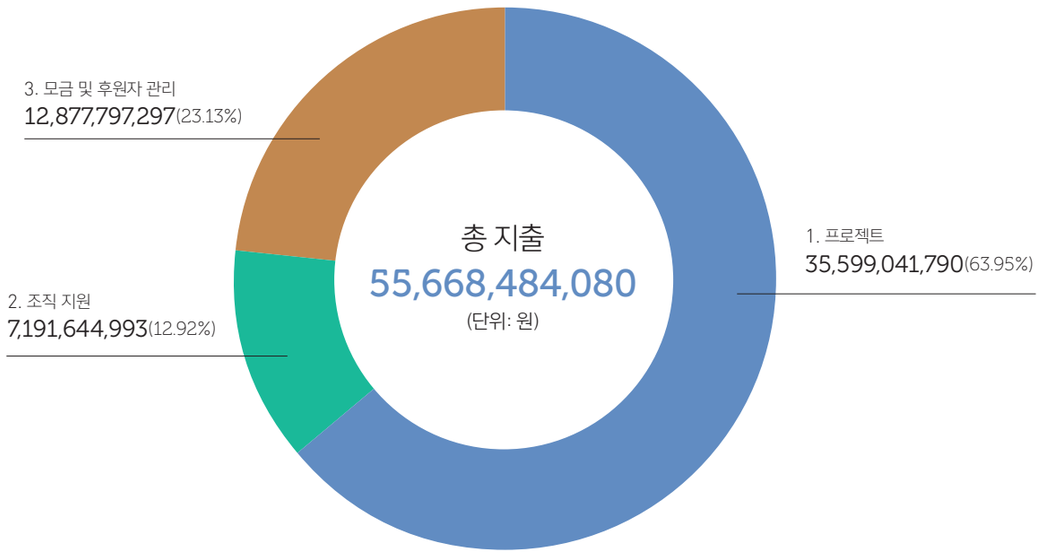
1 2021 서울 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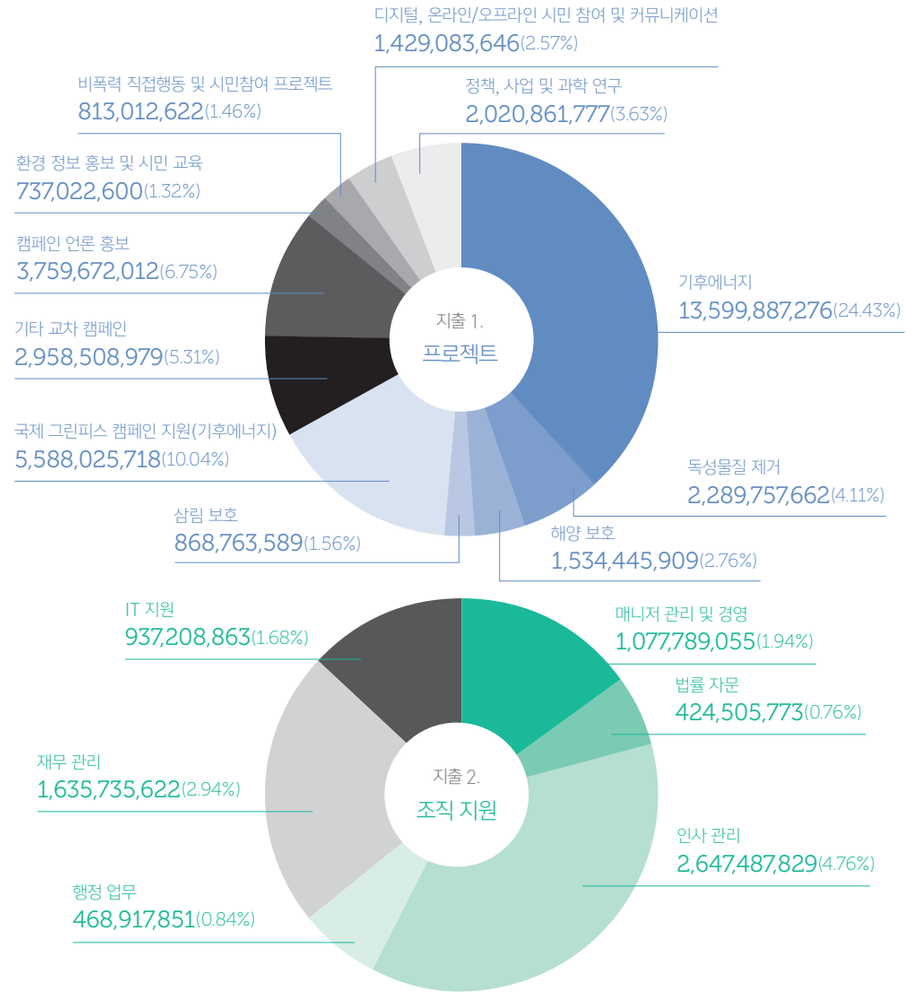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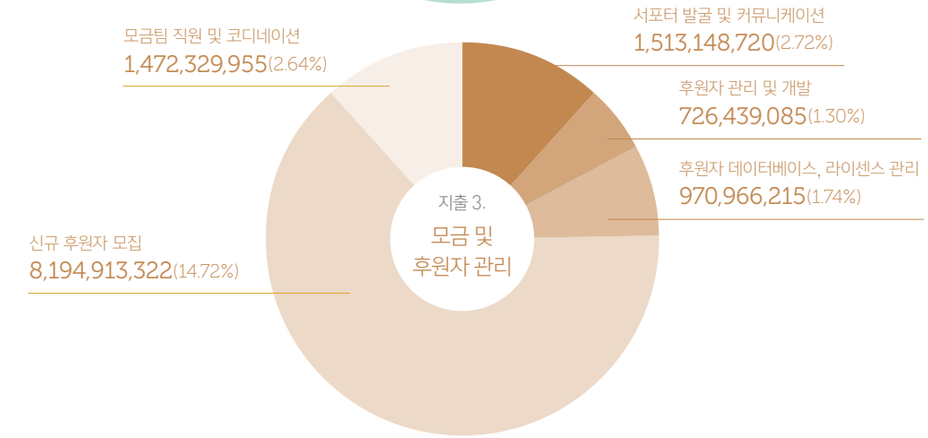


2 2021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3 후원금 상세 지출 비용

기후에너지

총액 13,599,887,276원

지속가능한 기후
— 서울 사무소

에너지 솔루션
1,976,028,368원

서울 사무소는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 수년간의 캠페인 끝에, 한국의 여당은 202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에는 정책 입안자들이 기후 행동에 나설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습니다.
- '그린뉴딜 시민행동'팀과 함께 300명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국가가 제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시민의 요구에 국회는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편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전국 14,000명 이상의 초등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세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 〈한·중·일 ICT 랭킹 보고서, '탈탄소 경쟁,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중·일 ICT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일본의 소니(Sony)가 기존의 탄소중립 목표를 10년 빨리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른 동종기업 역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개인이 일상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쟤로해' 캠페인을 3개월간 진행했으며, 2,000명 이상이 동참했습니다.

탈원전 캠페인
883,336,435원

탈원전 캠페인:
- 서울 사무소의 탈원전 캠페인은 1년 동안 한국 내 원전의 위험성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중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핵발전에 관한 거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과 맞섰습니다.
- 2021년 7월,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탈원전으로 대정전이 올 것이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가짜 뉴스에 맞서기 위해서였습니다. 토론회는 500명의 시민과 함께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틀 후,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입장과 같은 정보와 데이터를 발표했고, 가짜 뉴스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 내부고발자가 월성 원전 1기 방사성 물질 누설을 알렸고, 그린피스는 기자회견과 비폭력 직접행동을 즉시 진행해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 월성 원전 문제를 알리기 위해, KBS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와 협력했습니다. 특히 KBS와는 원자력 발전은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내용의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573,811,760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중 인식 강화:
- 기후위기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식량 보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2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한국 생물다양성 재단, 매거진B와 함께 〈사라지는 것들의 초상〉이라는 보고서를 '식량'과 '한국 생태계' 부분으로 나눠 발행했습니다.
- 기후위기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서해 해변의 샌드 아트 액션과 상암동 문화비축기지에서 미디어 아트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식품 가격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다양한 방식의 액션과 콘텐츠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얻어, 기후위기 문제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 기후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농부들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여러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식량 안보와 생태계 변화 문제를 알렸으며, 총조회수 10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538,300,239원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한 시민과의 소통: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후를 주제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회를 3주간 진행했으며, 25,183명의 시민들이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 국내 1위 온라인 교사 연수 플랫폼과 협력해 15개의 환경 교육 과정을 만들고 교사들에게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온라인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과 보다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해 향후 더 많은 학교에서 깊이 있는 환경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
— 타이베이 사무소

에너지 솔루션
1,709,986,496원

타이베이 사무소는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및 기후 교육:
-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기후 대응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탄소국경세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 대만 정부가 탄소배출권 규제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로드맵에 발맞출 것을 요구하는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50개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이 그린피스의 RE10X10 기후 선언에 동참하고 2025년까지 사용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RE10X10에 동참한 기업들을 초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에너지 전환의 비전과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연말 공유 세션을 개최했습니다.
- 2020년에 진행했던 교사 설문조사 및 사전 교류에 이어 녹색 미래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기후변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출시하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24개 제작했습니다. 출시 후 8개월 동안 240명 이상의 교사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경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전문가들과 협업해 온라인 교육 시리즈를 진행해 1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도시 기후비상 대책
1,394,075,200원

도시 기후비상 대책:
- 해수면상승과 폭풍 해일이 대만의 도시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온라인 쌍방향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1,400㎞에 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12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이 조사는 많은 언론에 보도되어 대중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 수개월간의 캠페인 끝에 대만의 4개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그중 2곳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 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국민투표를 앞두고 탈핵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업을 재개하려던 대만의 4차 원자력 발전소의 시도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334,801,343원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 식품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고기 없는 날 행사에 다양한 브랜드의 700명의 직원들과 6,2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행사로 총 20,000kg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테이크 1천 개 분량)
- 채식 식단을 대중화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 및 주요 인플루언서, 레스토랑들과 협력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온라인에서 7백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 산과 해변 청소 이벤트, 워크숍, 독서클럽, 벼룩시장, 대중 강연 등 77건의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49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참했으며, 2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 젊은 세대가 기후 행동에 동참하고 정부에 기후 정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대만 청소년 기후연맹(Taiwan Youth Climate Alliance)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력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1,627,884,830원

전 세계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업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단계적 폐지, 공급망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2021년 현대,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르노, 닛산, 다임러,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글로벌 10대 자동차 회사 친환경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동차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도요타 CEO의 기자회견에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9월에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습니다.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서울, 도쿄, 베이징 사무소가 협력해 유럽 사무소와 캠페인 전략을 공유하며 업계 전체를 압박했습니다.
- 한국, 중국, 일본에서 자동차 업계가 지역 탄소 배출과 환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발표하고 정책입안자와 업계가 전기차로 전환해 친환경 공급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 한국 자동차산업 종사자들이 기후위기와 산업 전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산업 종사자 노동조합과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현대, 기아, GM 직원들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
— 도쿄 사무소

1,365,865,888원

- 지방 정부와 자치단체가 야심 찬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배출 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도쿄 도청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E100% 도쿄〉 로드맵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 시민 사회 및 미디어와 협력해 1,000명 이상의 회원들과 함께 '탄소 제로 연합'을 조직하고 매주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강의 및 지역사회 기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해수면 상승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온라인 쌍방향 지도를 제작하고 기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시민들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방 정부 및 자치단체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의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후속 보도가 이어졌고, 기후 문제를 선거 의제에 성공적으로 담았습니다.
- 생물다양성과 기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리기 위해 저명한 과학자와 함께 비디오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 수년간의 지속적인 캠페인 끝에 일본의 7개 지방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수정하고 40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탄소중립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후

— 베이징 사무소

1,152,757,595원

- 중국 30개 성에서 탄소 배출 추세를 추적하고 분석해 저탄소 전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안을 제시했습니다.
- 팬데믹 후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와 인프라 투자 및 잠재적인 환경 위험, 녹색 투자 경향에 대해 분석하고 3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를 촉진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중국의 해외 재생에너지 투자 사업의 기회를 조사 및 연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함께 중국이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경제 발전과 에너지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련 이해 관계자 회의 및 세미나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 수년간 진행된 캠페인과 소통에 힘입어 그린피스는 지역의 에너지 전환 논의를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이해 관계자가 에너지 구조 전환에 적응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중국은 더 이상 해외에 새로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기후 대응

1,131,890,258원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에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 지역 및 글로벌 기상 이변 및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에 기반을 둔 3명의 핵심 팀원과 유럽에 기반을 둔 기후 및 기상 분석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시아 7개 주요 도시의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및 폭풍 해일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여 정부와 기업에 즉각적인 기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하계올림픽을 전후로 동아시아의 극심한 폭염에 대해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열대성 저기압 활동, 모래 폭풍, 가뭄, 겨울 폭풍과 같은 동아시아 기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전에 소통 방향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오피니언 리더 및 인플루언서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 1년 동안 15개의 지역 및 글로벌 기상 이변 및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도시의 기후 변화 적응과 회복력,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행동에 대해 논했습니다.

도시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 홍콩 사무소

335,349,399원

홍콩 탄소 중립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정부의 기후 행동에 대한 대중의 기대를 부각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공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9개 관련 단체와 함께 기후 정책에 대한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 이 캠페인은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홍콩의 모든 주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책 제안 중 일부는 정부가 2021년에 발표한 기후 행동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이해 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을 시작하여 기후변화가 식량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 40개 이상의 커피숍과 협력하여 기후가 커피 맛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렸습니다. 전문 바리스타와 함께 커피 시음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홍콩의 연예인이자 아마추어 농부인 조이 레응과 함께 "음식 박물관"이라는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현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미래에 기후 변화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며 130,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석탄, 수질 및 대기 오염

210,804,431원

-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와 협력해 대기질 및 화석 연료 사용의 글로벌 추세를 추적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 나갔습니다. 글로벌 대기 오염 팀은 과학 연구를 진행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대기질 정보 플랫폼 IQAir와 협력해 대기 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쌍방향 플랫폼을 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업데이트한 최신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인 <2021년 세계 대기질 보고서(World Air Quality Report)>를 발간했습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 국가 및 지역과 6,475개 도시 중 3%만이 WHO의 기준을 충족했으며, 아시아는 여전히 대기질이 가장 나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3,100건 이상 보도되었으며 약 40억 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로비 활동에 견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32명의 인도네시아 시민이 진행하는 기후소송을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은 도시의 대기 오염 악화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후 소송을 시작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3명의 각료 등 고위 관리들을 함께 법정에 세웠습니다. 2년간의 소송 결과, 법원은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가 지방 정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 기후 행동에 큰 승리를 의미합니다.
- 대기 오염과 지구 온난화 및 탄소 배출의 연관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온라인 콘텐츠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방사성 오염

209,532,474원

- 2021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린피스는 원전 사고 이후 현지 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왔습니다. 조사팀은 지난 10년간 총 32회 조사를 진행했으며, 원자력 전문가와 조사단이 현장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 연구 보고서 <2011-2021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의 현실>를 발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방사성 오염 문제를 알렸습니다. 18년간 GE(제너럴 일렉트릭) 원자력 사업부에서 원전 기술 책임으로 일했던 컨설팅 엔지니어 사토시 사토와 협력해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기술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일본 정부의 현재 폐기 계획은 30~40년 안에 달성하기 어려우며 현재 부지를 사고 전으로 100%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막기 위해 국제해사기구, 유엔인권위원회, 태평양제도포럼 등과 같은 단체를 통해 지속해서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우리의 캠페인은 전 세계에 언론에 보도되며 수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얻었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와 관련된 인물들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콘텐츠 18편을 발간해 원전 사고로 인한 장기적 위험과 재건의 어려움을 알리고 탈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정 에너지 투자

— 베이징 사무소

205,462,560원

- 수년간 중국의 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것을 촉구한 결과,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GDS, 상하이 데이터 포트 등 5개 중국의 거대 ICT 기업 및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알리바바 대표를 비롯한 업계 주요 이해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 중국의 22개 주요 기술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순위를 매기는 3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업계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고급 정책 세미나를 두 차례 개최하고 30명 이상의 기업 대표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업계의 목표를 높이는 한편, 재생에너지의 지역 간 거래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규정 설립 계획을 담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독성물질 제거

총액 2,289,757,662원

플라스틱 프리

서울 사무소

548,691,482원

서울, 타이베이, 홍콩 및 도쿄 사무소는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통해 대중과 언론, 정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거대 식품 소비재 기업들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대 식품 소비재 기업 5곳의 플라스틱 사용 및 감축 계획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 3곳의 거대 식품 기업을 상대로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량 공개와 감축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841가구, 2,671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가정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알아보는 '플라스틱 집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조사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 캠페인을 진행하며 압력을 가한 결과, 롯데칠성이 3년간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공개한 첫 번째 기업이 되었습니다. 롯데제과 역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 용기 사용량을 2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매년 350톤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전 세계 150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721,245,099원

- 대만의 대형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캠페인을 펼치고, 더욱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주요 인플루언서와 협력해 플라스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펼친 결과 22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 '플라스틱 프리 동맹'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타이중시 및 54명의 주요 오피니언 리더와 협력해 플라스틱 제로 라이프스타일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으며, 이 지도는 237,000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고 10개 이상 미디어에 보도되었습니다.
- 2021년 6월 환경보호청과 지역 환경부, 패스트푸드 체인, 카페 체인, 소매업체 대표를 포함해 33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순환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재사용 프로그램 확대를 장려했습니다.
- 타이중시에서 20개 이상 지역 상점과 제휴해 3개월 동안 컵 대여 시스템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대중과 기업, 당국의 인정을 받아 컵 대여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타이베이시와 윈린시를 포함한 시 정부와 타이난 맥도날드 역시 타이중시의 컵 대여 시스템 성공에 영향을 받아 자체 컵 대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편의점 체인인 훼미리 마트와 함께 컵 대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2022년 말까지 대만 전국 매장 400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매점 및 카페 체인에서 재사용 컵 대여 및 반환 프로그램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실용적이며, 더 폭넓은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동종업계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홍콩 사무소
530,543,791원

- 지역 환경단체와 협력해 홍콩 정부에 2025년까지 식당 및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완전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해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에 규제에 대한 공개 협의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9개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외식·테이크아웃 일회용 식기 유통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홍콩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매년 5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한 전문가들과 협력해 테이크아웃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지역 시민들은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홍콩 농촌 하천에서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조사를 실시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이미 홍콩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렸습니다.
- 상점 및 식당,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와 꾸준히 협력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린피스는 1,1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없는 매장을 모집해 2건의 공개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식기 및 포장재 사용을 홍보하였으며 1,000여 명 이상 시민들이 동참해 총 1,500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를 절약했습니다.

도쿄 사무소
122,006,018원

- 근본적인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기업에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홍보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 도쿄 환경국과 교토 가메오카시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 대표, 지역 공무원, 지식인 단체, 언론 및 시민을 포함해 80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온라인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공동 조직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활동은 정치권 및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추후 플라스틱 규제 정책 수립 및 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인한 환경 문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스타벅스 재팬을 상대로 플라스틱 감축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대중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 2021년 6월 마침내 스타벅스 재팬이 일부 지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컵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매장을 소개하는 온라인 쌍방향 지도를 제작했으며, 몇 달 사이에 시민들이 500개가 넘는 플라스틱 제로 매장을 직접 등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도시 순환 경제
— 베이징 사무소

367,271,272원

- 중국의 저탄소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홍보하고, 정책 목표 수립을 통해 도시를 위한 순환 경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중에 순환 경제와 폐기물 감소 및 재사용, 관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현황과 실제 사례들을 분석해 자원 관리, 기술 개발 및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는 2건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에 기술 분석, 탄소 배출 분석, 비용추정, 경제·환경 종합편익 등을 담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구 보고서 결과와 결합해 중앙·지방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차원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780,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습니다.

해양 보호

총액 1,534,445,909원

해양 보호
582,748,294원

- 2030년까지 최소 30%의 바다를 보호한다는 최종 목표(30x30)를 가지고 UN에서 강력한 글로벌 해양 조약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했습니다.
- 그린피스 해양감시선과 과학자들은 바다가 처한 위협을 폭로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원정대는 불법 어업을 폭로하고 기록하기 위해 태평양과 인도양을 항해했으며 위협받는 펭귄 서식지를 조사하기 위해 남극 항해를 진행했습니다. 이 활동들은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아 세계 지도자들에게 해양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 2022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다양한 정도로 보호한다는 30x30 목표를 지지했습니다. 동아시아 31만 명(한국 13만 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거의 500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와 협력하여 추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린피스 캠페이너들은 공해의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제4차 유엔정부간협의회의(IGC4)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30x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대표와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나누었고 아프리카 국가, 태평양 섬 국가, 카리브해 국가 및 일부 EU 국가의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지방 정부가 30x30 목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성공적으로 지역의 대중 인식을 높였습니다. 서울 사무소는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P4G 정상 회의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P4G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공식적으로 30X30 해양보호구역 지정 지지를 선언하고 '세계해양연합'에 가입했습니다.
- 서울 사무소는 해양 동물들을 활용한 MBTI 테스트를 제작해 바다와 해양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여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 바다가 처한 위기를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사무소는 유명한 서핑 강사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서핑 가이드를 출판하고 단편 영화를 촬영하여 3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타이베이 사무소
946,470,140원

- 연안 해역 및 원양에서의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 2030년까지 대만 연안 해역의 30%를 보호하는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을 목표로 대만 해양 생태계 보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전문가 및 전문 기관과 협력해 대만의 해양 생물 다양성이 직면한 위협과 지역 양식 시장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폭로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2022년 4월, 16개 대만 환경 단체와 여러 현지 전문가, 학자 및 환경 변호사와 함께 해양 보존법 초안을 만들어 제안했으며 여러 정당의 20명 이상의 의원들로부터 성공적으로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는 대만 바다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해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팁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해산물 핸드북〉을 발행해 2만 건 이상의 조회수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 25척의 어선, 35명의 어부, 약 60명의 잠수부 및 자원봉사자와 협력해 지역 해양 보호 구역에서 수중 청소 이벤트를 진행해 422kg에 달하는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이는 해양보호구역의 부실한 관리를 대중에 알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불법 조업 활동에 대한 심층 조사를 위해 미국 및 동남아시아 사무소와 함께 장기적인 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5월, 대만 어선 5척이 불법 어업활동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 대만 시민단체, 전 인도네시아 어부 70명, 미국의 고객 등 10,000건 이상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대만 정부에 어업 관리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수개월간의 활동 끝에 정부는 2022년 초 불법에 연루된 대만 어선의 책임자를 기소했습니다. 이는 대만 원양어업의 근본적 정책 변화를 위한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베이징 사무소
5,227,475원

- 중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원양어업 관리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기구와 협업해 공동 포럼을 조직하고, 불법 어업 관행을 막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좀 더 신속하게 법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산림 보호

총액 868,763,589원

글로벌 산림 보호 및 생물다양성

868,763,589원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각국 정부에 산림 보호를 위한 압력을 가하는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 시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 기업형 농업을 위한 농지 확장을 위해 대규모 삼림 벌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중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해,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등 일상 속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유엔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 유엔 사무국, 주요 실무그룹, 여러 NGO, 언론 등 주요 관계자와 관계를 구축하고, 다른 환경단체들과 중국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생물다양성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삼림 관리인 인터뷰, 단편영화 3부작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아시아 코끼리 서식지 복원에 대한 현지 조사 및 과학 연구를 지속해서 지원했습니다. 2021년 완난성의 길 잃은 코끼리가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얻자, 시기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림 보호 권장 사항을 받아들이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교차 캠페인

총액 2,958,508,979원

도시 개발

— 홍콩 사무소

1,149,789,811원

홍콩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홍콩 정부의 대규모 매립 사업인 '란타우 투모로우(Lantau Tomorrow)' 프로젝트는 소중한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피스는 176,000명 이상의 시민들과 함께 란타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보다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이며 현실적인 방법인 재개발용 토지 개발을 우선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불법 사용되고 있는 재개발용 토지 실태를 폭로하는 3개의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380헥타르에 달하는 재개발용 토지가 정부 자료에서 누락된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미디어에 게재되며 대중과 언론의 커다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재개발용 토지 관련 후속 조치가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 2개월간의 현장 조사 결과, 최소 35곳의 재개발용 토지에서 '전자폐기물 산'이 발견됐습니다. 이 조사는 115건 이상 언론 보도를 기록했고, 정부에 압력을 가해 토지 소유자에게 경고를 보내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하도록 했습니다.
- 더 많은 사람들이 란타우 보호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콩의 재개발용 토지 현황에 대한 사실 기반 증거를 제공하는 다수의 온라인 강연 및 공개 참여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 7개 지역 NGO 및 단체와 협력하여 홍콩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으며, 일부 그린벨트의 토지를 개발 용도로로 재지정하려는 정부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제안은 취소되었습니다.
- 14개 NGO 및 지역 환경 단체와 협력해 홍콩 정부가 란타우 투모로우 프로젝트의 포괄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지 못했으며, 주요 의사 결정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해 캠페인에 힘을 더했습니다.

기후 공동체 이해 관계자 협업

613,344,264원

- 대중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 기반의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제작자와 협력해 40개 이상 비디오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기후위기의 영향과 인권, 해양 보호,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상기후를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 기후위기를 주제로 유명 디자이너와 함께 보드게임을 제작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 지역사회 대표, 이해 관계자 및 지역 환경운동가들을 초대해 다수의 문화 살롱을 개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환경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 많은 지역사회 시민들이 환경운동가가 되어 환경 보호를 위해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환경 과학

— 베이징 사무소

610,553,878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미·중 기후 대화, 2021-2022 글로벌 에너지 위기, 제26차 유엔 기후협약(COP26),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OP26) 등 주요 국제 환경 이슈에 대응해,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발행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대중의 인식과 관심을 높였습니다.
- 미디어, 이해관계자, NGO가 기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해 매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지역 미디어, 학술 기관, 창조 산업 및 NGO 분야에서 60명 이상의 대표들과 함께 기후 관련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콘텐츠의 질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0주년 기념

584,821,026원

- 2021년은 그린피스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함께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웹페이지를 제작했습니다.
- 도쿄 사무소는 'Next100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대중에게 100년 후 아이들을 위해 미래의 비전을 갖고 행동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의 유명 연예인 미즈하라 키코를 비롯해 환경 운동가와 배우 등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자연과 동물 권리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서울 사무소는 조선희 사진작가, 월간 잡지 더블유 코리아와 함께 이정재, 한예리, 권유리, 이선균, 차학연, 윤승아, 류승룡, 박진희, 장윤주, 이광수 등 총 10명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50주년 기념 화보를 촬영했습니다. 이번 화보는 기후위기의 위험성과 해결책을 화보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했습니다.
- 베이징 사무소는 그린피스의 역사와 활동을 사진으로 담은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공개 살롱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그린피스 활동 지원

총액 5,588,025,718원

기후 보호

4,732,147,382원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생활, 지역 사회 참여 및 시민 참여 봉사 활동에 중점을 두고 그린피스 동남아시아지부의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방콕:

- 깨끗한 공기를 누릴 시민들의 기본 권리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재생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호 및 소비자 보호 등의 주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 조직 연합인 태국 솔라 펀드와 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 펀드의 목표는 정부, 민간, 기업 및 기관 등 시설 옥상에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고 확장하기 위한 자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펀드를 통해 2022년 3월까지 태국 전국 7개 공립 병원과 5개 대학에 태양광 옥상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자카르타:

- 대중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NGO와의 협력을 통한 기후, 생물다양성 및 인간 친화적 미래를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수개월에 걸친 캠페인 끝에, 정부는 토착 원주민 소유 토지의 팜유 농장 허가를 취소하고 현지 원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50곳이 넘는 지역 시민 단체들과 협업해 반부패 이슈, 기후 위기, 표현의 자유, 기타 민주주의 및 인권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논의 했습니다.

마닐라:

- 다양한 청소년 리더십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 활동 이벤트를 진행해 17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 기후정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필리핀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전역의 더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지방 정부가 기후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기후 비상사태'선언을 촉구했습니다. 2021년, 새로 선출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주요 대선 후보가 녹색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의 모든 숲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검토에 참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8,000년 된 숲이자 문화유산이며 지역 토착민들의 고향인 쿠알라 랑갓 북부 산림 보호 구역을 포함한 모든 슬랑오르주의 숲을 보호하겠다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환경 문제 및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 수집, 법률 업무, 잠재적 동맹과의 협력 등 소송 사전 준비 및 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제적 조사 및 캠페인

855,878,336원

-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부 환경과 코비드19로 인한 급격한 변화, 또 팬데믹 이후 세계에 대응하며 전 세계 사무소와 협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창적이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캠페인과 정보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으로 그린피스 기후위기 캠페인의 강점과 강력한 목표를 알렸습니다.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화석 연료 업계의 그린 워싱 뒤에 숨은 진실을 폭로하고 액티비스트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환경 악화, 불평등과 갈등의 표면적 증상 해결을 넘어, 이런 현상을 지속시키는 근본 원인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내부 모니터링 및 프로젝트 평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지원

총액 8,759,652,657원

1.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

총액 5,925,778,258원

캠페인 언론 홍보

2,431,989,065원

서울, 홍콩, 타이베이, 베이징, 도쿄 사무소의 28개 환경 프로젝트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25명의 커뮤니케이션 스태프가 다양한 외부 미디어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합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캠페인을 알려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해 캠페인 메시지와 정보를 알립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인터뷰 진행, 국내외 미디어 출연 및 보도자료 전달 등 활동을 진행합니다.
-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동아시아 지역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모든 환경 보호 프로젝트와 그린피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조직의 이미지 및 가치와 일치하도록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 지부 내 4개국의 국내외 캠페인 활동 및 환경 관련 기사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외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하기 위한 키워드, 기사 및 환경 뉴스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브랜드 구축 및 대중 인식 조사

395,444,606원

- 지역사회 단체들과 협업해 환경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를 만듭니다.
- 더 큰 캠페인 영향력을 이끌기 위해 분석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혁신 및 향상을 위해 지원합니다.
- 그린피스의 환경 캠페인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파트너 단체나 개인이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최신 경향을 분석해 그린피스의 활동과 캠페인 메시지, 핵심 가치를 전하는 비디오, 브로슈어, 책자 등을 제작합니다. 학교, 대학교 및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알립니다.

디지털, 온라인·오프라인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1,429,083,646원

- 미디어 정보 분석,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멀티미디어 작업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 관리를 개선하고 혁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여 더 큰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환경 보호 프로젝트 외에도 기후에너지, 북극 보호, 해양 보호, 삼림 보호 등 전 세계 그린피스 사무소가 진행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지원하고 참여했습니다. 국경 없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캠페인에 동아시아 지역 시민들이 동참함으로써 정부 및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장 및 대중 조사를 진행하고, 최신 커뮤니케이션 트렌드에 발맞추어 캠페인 소식을 전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소통 방식을 위해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환경 문제 관련 데이터 분석

309,389,044원

-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그린피스의 캠페인 메시지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뉴스 및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을 진행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멀티미디어

622,849,297원

- 환경파괴 현장을 찾아가 기록하고, 캠페인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진, 일러스트, 비디오를 제작합니다. 미디어에 그린피스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배포하는 라이브러리를 운영하며, 온라인 캠페인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후원자 커뮤니케이션

737,022,600원

- 후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5개 국어로 발행하며, 후원자 및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환경 뉴스와 캠페인 소식을 알리기 위해 이메일, 웹사이트, 문자,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정기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합니다. 기후와 인권, 해양 보호, 기술 개발, 동물보호구역, 이상 기후 등 기후 비상사태에 대해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기후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2. 비폭력 직접행동 및 시민참여 프로젝트

총액 813,012,622원

지역 비폭력 직접행동 및 오프라인 시민 참여

225,984,404원

- 비폭력 직접행동(NVDA) 기획 및 실행, 예산 관리 및 법률 평가 등 전반적인 활동을 진행합니다.
- 액티비스트 개발 및 트레이닝, 시민 조사 활동을 지원합니다.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 설계 및 자원봉사 활동 조직을 통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트레이닝 및 장비

246,838,603원

- 장비 구매 및 관리 등 비폭력 직접행동(NVDA)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했습니다.
- 최신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액션을 진행하며 액티비스트에게 환경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아시아지부의 액션 및 시민참여 캠페인 팀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창고

340,189,615원

- 장비 보관 및 행사용 창고를 운영합니다. (대여비, 관리, 보수)

3. 정책, 사업 및 과학 연구

총액 2,020,861,777원

지역 조사 및 연구

461,870,715원

- 동아시아지부 내 5개 사무소의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알리고, 환경오염 근절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긴급 환경재해를 모니터링해 빠르게 대응하고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항공 촬영 영상을 사용한 환경 범죄 기록, 인공위성을 활용한 위치 추적, 선박 추적 등과 같은 혁신적인 연구 및 조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환경 사고나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 등을 모니터링하고 긴급 대응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연구 역량 개발

100,887,553원

- 장소 스카우팅, 샘플링, 온라인 조사 등 연구를 위한 정규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장비 관리, 모범 사례연구, 위험 평가 및 보안 등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고급 인지과학 적용

920,213,325원

-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시민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켜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급 인지과학(신경 과학, 심리학, 언어학 등)을 캠페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린피스 주요 사무소 전체의 과학적 역량을 강화합니다.
- 포스트 코비드 상황에 대응해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사회 구조 변화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전 세계 캠페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반영했습니다.
- 총 5명의 팀원이 협력사 및 전 세계 사무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 및 대중 이해, 시스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책 및 외부 업무

284,952,186원

- 그린피스 캠페인과 관련해 각국 정부 및 UN과 연락하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정치계 주요 인사와 조사기관 및 다른 NGO와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세미나에 참여합니다.

지속가능한 금융 및 사업

252,937,998원

- 비즈니스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 전문가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 캠페이너로 활동합니다. 환경을 위한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전문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공개 비즈니스 포럼 등 투자 및 금융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참여합니다.